

## 東醫壽世保元の 四焦說에 對한 考察

宋一炳\* 洪錫喆\*

### 緒 論

東武의 四象說은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밝혔듯이 上下前後 및 內外表裏에 의한 陰陽偏差에 따라 部位를 나누고, 그 각각의 部位에 必然的으로 作用하는 氣의 狀態를 認知하였다. 이러한 部位와 氣의 作用에 따라 人體를 上下內外表裏의 陰陽偏差에 따라 四焦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四焦 機能의 大小에 따라 四象體質이 나오게 되었다. 體質의 다름에 따라 體刑氣像이 다르고, 心性이 다르며 生理的 病理的 狀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同一한 疾病이라도 그의 治法은 각 體質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四焦의 部位를 나누고, 그 氣의 特性을 考察하는 일은 매우 重要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四焦은 각각 臟腑의 生理的 機能을 포함하니, 여기서 人體가 필요로 하는 生理적 基礎物質이 生産되고, 轉化되며, 消耗되어지는 生命活動을 영위하는 大區域이다. 이곳에는 四臟四腑가 존재하며, 知行이 認識 되어지고 行해지는 部位가 포함되며, 生理的 轉化 物質이 보존되는 前後四海가 존재하며, 그러한 哲學的이며, 生命論的인 機能을 수행케하는 機能의 單位인 氣가 존재하여 各焦마다 독특한 上下內外表裏의 昇降進退의 偏差를 가지고 그에 따른 生理的

病理的 상황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四焦의 部位와 그 氣의 偏差에 따른 特性을 이해하고 生理的 病理的 상황을 再照明해 보는 것은 상당한 意義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四焦의 部位나 特性을 理解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明確한 考察도 없이 慣習의이고, 無批判的인 知識에 가이하여 理解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체계적 研究 역시 全無한 실정이므로 이에 論者는 이를 밝혀 보고자 東醫壽世保元에서 밝혀 놓은 部位 및 氣의 特性에 대한 考察과 現代 解剖學에서 밝혀 놓은 세세한 部位와 연결시켜 보고자 하였다.

### 本 論

#### 1. 四焦의 部位

〈資料1〉

(1-1) 上焦者 在心下 下胸在胃上口 中焦者在胃中脘 下焦者 當膀胱上口.

(扁鵲難經)<sup>1)</sup>

(1-2) 胸中膈之上曰上焦 膈之下臍之上曰中焦 臍之下曰下焦.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醫學正傳)<sup>2)</sup>

(1-3)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耳聽天視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肺達事務 鼻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義 腰有才幹 臀有方略.

耳目口鼻觀於天地

肺脾肝腎入於人也.

頷臆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4) 腰脅者肝之所住着處也.

胸腋者脾之所住着處也.

脊曲者腎之所住着處也.

背頓者肺之所住着處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1-5) 太陽之聽能廣博於天時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陰之嗅能廣博於人倫故太陰之血充足於腰脊而歸肝者大也.

少陽之視能廣博於世會故少陽之氣充足於背脊而歸脾者大也.

少陰之味能廣博於地方故少陰之精充足於膀胱而歸脾者大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1-6) 肺腑位 在頓下背上 胃脘部位在 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謂之上焦.

脾部位 在脊胃部位在膈 故脊膈之間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在臍 故腰臍之間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謂之下焦.

(1-7) 頭腦之賦海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腎之根本也 舌之津海耳之根本也 乳之膏海目之根本也.

臍之油脾之根本也 前陰之液海口之根本也.

(1-8) 賦海之濁涕則頭以直伸之力鍛鍊之而成皮毛.

膜海之濁涕則手以能收之力鍛鍊之而成成筋.

血海之濁涕則腰以寬放之力鍛鍊之而成肉.

精海之濁涕則足以屈強之力鍛鍊之而成骨.

(以上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1-9) 太陽人體形氣像腦頓之起勢盛壯而腰位之立勢孤弱.

少陽人體形氣像胸襟之包勢盛壯而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體形氣像腰位之立勢盛壯而腦頓之起勢孤弱.

少陰人體形氣像膀胱之坐勢盛壯而胸襟之包勢孤弱.

(1-10) 太陽人 女體形壯實而肝小脅窄故子宮不足, 太陽人體形上盛下虛胸實足輕剽銳好勇.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1-11) 論曰 此則太陰人傷寒背頓表病輕證也.

(東醫壽世保元, 太陰人病證)

(1-12) 背爲胸中之府. (內經)<sup>3)</sup>

(1-13) 胸爲呼吸之所. (醫鑑)<sup>4)</sup>

(1-14) 胸爲四尺五寸缺盆以下至鬲肝. (靈樞)<sup>5)</sup>

(1-15) 背脊骨節有數: 頓骨以下至尾底二十一節長三尺. (靈樞)<sup>6)</sup>

(1-16) 胸膈之部位: 膈者心肺之分也. (剛目)<sup>7)</sup>

(1-17) 膈膜在心肺之下與背脊胸腹周回相着如幕不漏蓋膈者隔也 若隔濁氣不使上熏於心肺故謂之膈之膈也. (入門)<sup>8)</sup>

(1-18) 肩下日腋 腋下日脅 脅下日季肋. (剛目)<sup>9)</sup>

<考察>

三焦의 部位는 內經이래로 가장 논란이 많은 理論 중의 하나이다. 實體의 有無나, 部位의 區劃 및 生理나 病理에 다양한 主張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部位에 대한 가장 타당한 理論은 橫膈膜以上을 上焦, 橫膈膜以下 臍上을 中焦, 臍下를 下焦로 그 部位를 나누고<sup>10)</sup> 生理 및 病理를 論한 것이다.

東武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部位的 区分이 明確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으로 해부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한 理論自體가 세세한 區劃을 정해 區域을 定義한 것도 아니었다.

性命論에서 東武는 자신의 四象哲學의 四元構造를 人體에 그대로 適用시켰다. 我와 自然과의 認識의 通路로서 耳目口鼻를, 我와 非我인 他人과의 認識의 通路로서 肺脾肝腎을 我的 認識의 發顯部位로서 頤臆臍腹을, 我的 行의 施行을 위한 構成部分으로서의 頭肩腰臀으로 構成하여 총체적인 社會的 人間으로서 필요한 四大 構成要素를 각각의 4대 器官 및 部位에 機能을 부여해 놓았다. 이러한 4대 構成要素 中 天氣를 행하는 耳目口鼻를 제외한 肺脾肝腎과 頤臆臍腹. 頭肩腰臀 등을 人體의 으로 構成하여 이를 人體의 4大圈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자료1-3)

#### 1) 四焦에서 제외된 顔面

顔面에는 耳目口鼻가 있어 物質을 듣고, 보고, 맡고, 맛보는 機能을 가진 感覺器官일 뿐만 아니라, 天機를 듣고, 보고, 맡고, 맛보는 形而上學的인 機能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東武는 人間을 포함한 宇宙自然을 天人으로 分豁하였으니 天은 我와 宇宙自然과의 관계에서 오는 要素이며, 人事는 我와 非我인 他人과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人事를 行할 때 構成되는 要素를 4대分豁하였고, 이러한 天機를 認識하고 人事를 行하기 위한 知行의 機能的 發現處로서 顔面을 제외한 人體의 前後面에 각각의 4대 部位를 나누어 놓았다. 四焦란 天機를 주재하는 耳目口鼻가 있는 안면을 제외한 人體를 上下陰陽 偏差에 의하여 4대 구역으로 나누어 人體의 生理 및 病理를 설명한 最大의 包括的 機能을 갖는 大區域이라 할 수 있다. (자료1-3)

자료(1-6)에서 胃脘部位는 頤下胸上이며, 肺部位는 頤下背上이라 하여 안면은 四焦인 上焦에서 除外된다. 그러나 耳目口鼻와 人體全體에서 분할되어진 四焦와 연계되어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이를 보

면 耳는 上焦, 目은 中上焦와 鼻는 中下焦, 口는 下焦와 연계되어 機能을 수행한다. 耳目口鼻의 廣博於 天機하는 힘에 의하여 前四海의 津膏油液을 提出하여 神氣血精으로 變化시켜 生理的 機能을 수행케 하고, 頭肩腰臀에 위치한 後四海를 형성하게 하는 原動力이 되는 기관으로서 모든 氣가 昇降出入하는 通路이다. (자료2-9)

#### 2) 四焦의 部位

(1) 四臟四腑의 解剖學的 位置와 四焦部位 定義의 否合如否 考察

資料(1-6)을 보면 肺와 胃脘部位를 합하여 上焦라 하였으며, 脾와 胃部位를 합하여 中上焦라 하였고, 肝과 小腸部位를 합하여 中下焦라 하였으며, 腎과 大腸部位를 합하여 下焦라 명하였다. 이러한 四焦로 設定한 部位와 解剖學的인 肺脾肝腎 및 胃脘胃 大腸의 解剖學的 位置와 一致하는지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肺部位는 上部境界는 胸椎 1번 棘狀突起부터 下部境界가 第 10胸椎의 棘狀突起 위치에 있으며, 呼吸時에는 第12胸椎 棘狀突起까지 내려간다.<sup>11)</sup>

胃脘部位는 食道部位로서 제 6頸椎 높이에서 咽頭로부터 이어져 胸腔에 이르면 胃의 噴門에 이른다.<sup>12)</sup>

脾部位는 脾臟과 臍臟을 합쳐 名한 것으로서 이들의 해부학적 위치는 脾臟은 上으로는 胸椎11番 棘狀突起부터, 下로는 腰椎 2番 棘狀突起까지이며, 臍臟의 위치는 上으로는 胸椎 11番 棘狀突起부터 下로는 腰椎 1번 극상돌기까지이다.<sup>13)</sup>

胃部位는 대개 上으로는 橫膈膜下的 약 胸椎 11번에서 腰椎 1번까지이며 포만시는 腰椎 2-3번 사이까지 위치한다.<sup>14)</sup>

肝部位는 胸椎 10번 극상돌기 下부터 腰椎 3번 극상돌기까지이며,<sup>15)</sup> 小腸部位는 上部로는 腰椎1번의 右側部位에서 출발하여 右側腸骨窩 근처에서 맹장으로 이어지며,<sup>16)</sup> 大腸部位는 여기서 腹部를 右

으로 橫行結腸이 되고 左端에서 下行하여 肛門과 통하게 되며,<sup>17)</sup> 腎部位는 제11胸椎부터 제3腰椎에 걸쳐 後部腹壁에 위치하고 있다.<sup>18)</sup>

以上 肺脾肝腎의 部位를 통찰해보면 肺는 胸椎 1번부터 胸椎 10번까지이며, 脾는 胸椎11번부터 腰椎 3번까지이다. 그러나 東武는 臟腑論의 肺部位는 頤下背上이며, 脾部位는 在膂하며, 肝部位는 在腰하며 腎部位는 在腰脊下라 하였으니, 이는 現代解剖學的 四臟 位置와 同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胃脘, 胃, 小腸, 大腸部位도 역시 一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1-6) 따라서 東武의 장부론에서 말한 四臟과 四腑의 部位에 대한 개념은 肺脾肝腎 및 胃脘胃小腸大腸의 해부학적 위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東武의 四臟四腑의 位置 및 四焦部位의 考察

以上에서 고찰한 것처럼 四焦의 部位는 內部臟器에 대한 部位的 分豁에 있어서 그 해부학적인 위치보다는 機能的인 發顯部位를 中心으로 臟腑論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外部的 발현 現象의 氣的 形態의 像을 중시한 東武의 哲學體系로 볼때 四焦에 대한 部位的 서술은 다소 논리가 정연하다.<sup>18)</sup>

그러면 四臟, 四腑로서 정의되어진 四焦의 地位를 臟器의 해부학적 위치와는 無關하게 東武가 설정한 이들의 部位를 分析考察해 보고자 한다.

背上胸上以上을 上焦라 하였다.

背란 呼吸하는 肺를 보호하는 助骨로 싸여 있는 곳의 뒤쪽이다. (자료1-12)

胸은 缺盆穴以下에서 鳩尾穴까지이다. (자료1-13, 1-14)

그러면 上焦의 개념이 과연 背部의 上인 頸추7번 以上과 鎖骨上緣以上을 뜻하는지 上焦를 지칭한 단어들을 찾아보자. 자료(1-4)에서 보면 背頤는 肺가 존재하는 部位라 하여 背部가 肺의 部位임을 示唆한다. 또한 자료(1-11)을 보면 太陰人의 表病證을 東

武는 背頤表病이라 하여 肝大肺小한 肺部位의 病을 표현하였으니 역시 背는 肺의 部位인 上焦에 속한다는 것을 暗示한다.

그러나 자료(1-4, 5, 6)에서 보면 四焦의 盛함은 역시 頭腦, 頭의 直伸之力, 腦頤之起勢 등 背部를 제외한 위쪽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上焦의 部位는 前面으로는 顔面을 제외한 턱밑에서 턱과 목이 만나 주름이 잡히는 部位인 頤下부터 胸部가 시작되는 지점 위인 鎖骨上緣까지 部位이며, 後部로는 앞 이마인 前髮際以下後頭部와 頸椎7번 以上을 포함하는 部位가 합당하나 文獻 고찰상 境界지역인 胸上과 背上은 경우에 따라 上焦와 中上焦에 혼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部位가 胸腋以下를 넘지는 않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자료(1-4)를 보면 胸腋은 絜연한 中上焦의 部位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中上焦의 部位에 속하는 後四海인 膜海가 背脊에 위치하며 上肢인 手 역시 中上焦의 機能 발현에 따라 能收之力을 발휘하고 있으니, 背脊과 肩과 手로 이어지는 이 部位는 上焦라기 보다는 中上焦에 속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소 背部가 혼용되어 上焦와 中上焦간에 나타나는 것은 두 部位의 境界를 一線으로 그어 구역을 규정짓는다는 것에도 다소 無理가 따름을 알 수 있다.

前面의 境界區域인 缺盆穴을 境界로 人體를 Transverse section해 보면 胸椎2番 椎體 下面과 만난다.<sup>20)</sup> 따라서 李齊馬는 前으로는 頤下에서 鎖骨上緣 以上 部位이며, 後로는 前髮際에서 後頭를 거쳐 頸椎7番 下端까지인 頭頸項部를 대략적으로 上焦라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上焦는 膂膈之間이라 하여 上焦의 하단 境界 部位인 膈部上 以下부터 前으로는 膈이라고 명확한 지칭을 하였으나, 後로는 膂라 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다. (자료1-6) 膂란 第一胸椎를 말하는 것이니 第一胸椎骨以下 尾骨까지를 二十一個로 보았으며(자료

1-14), 膈이란 지금의 橫膈膜이다. (자료1-16, 17) 따라서 中上焦의 部位는 橫膈膜의 上部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橫膈膜은 각각 기시부가 다르고 앞뒤의 水平的 偏差가 있다. 橫膈膜은 呼吸에 重要な 구실을 하며 胸腔과 腹腔을 境界짓는 筋肉의 膜으로서 기시부가 세군데 있으니 胸骨部分은 검상돌기의 内面에서 기시하고, 肋骨部는 제7-12늑골의 内面, 그리고 腰椎部는 제일 腰椎와 제12늑골간에 걸쳐 있는 内 및 外側 腰助弓과 第1-4 腰椎體에서 左 및 右角으로 각각 기시한다.<sup>21)</sup> 따라서 단순히 橫膈膜上이라고 해도 명확히 部位를 規定짓기 어렵다. 즉 앞 뒤의 位置的 部位가 앞에서 뒤로 橫斷하여 어떤 水平的 部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橫膈膜은 보통 安靜時에는 1.5cm 内外로 上下 收縮과 弛緩을 하나 深呼吸時는 7-8cm以上 上下로 運動을 한다.<sup>22)</sup>

그러나 橫膈膜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部位를

transverse section해 보면 앞으로는 검상돌기하에서 뒤로는 胸椎 10番部位를 橫斷한 水平面으로 이 以上을 中上焦라 하고 이 線을 陰陽分岐線으로 할 수 있다.<sup>23)</sup>

즉 胸腔과 腹腔을 境界짓는 橫膈膜이 위치한 部位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東武는 中下焦를 腰臍之間이라 하여 뒤로 腰椎1번 상단을 陰陽分岐線으로 잡고 있는듯 하다. (자료1-6, 8, 10)

그러나 腰가 腰椎部만을 말하는 것과 같으나 사실은 腰脊은 肝이 소재하는 部位로서 中下焦를 腰脊이라 하였으며, 胸臍은 脾가 소재하는 部位인 中上焦라고 밝혔다(자료1-4). 자료(1-5, 8)에서는 腰脊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허리인 腰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脊部까지를 말함으로, 肝部位인 中下焦는 대략 橫膈膜以下인 脊部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中上焦는 앞으로는 검상

〈표1〉 四焦部位 各稱(東醫壽世保元上)

	上 焦		下 焦	
	上 焦	中上焦	中下焦	下 焦
四臟部位	肺部位頤下背上	脾部位在腎	肝部位在腰	腎部位腰脊下
四臟部位	胃脘在頤下胸上	胃部位在膈	小腸部位臍	大腸在臍腹下
四 官	耳	目	口	鼻
四 臟	肺	脾	肝	腎
四知出部位	함	臆	臍	腹
四行出部位	頭	肩	腰	臀
四 部	胃 脘	胃	小 腸	大 腸
前四海部位	舌 下	臆間, 兩乳	臍	前陰毛際之内
後四海部位	頭 腦	背 脊	腰 脊	膀胱
四 行	頭	手	腰	足
四 臟	部 位	背 頤	胸 臍	腰脊 腰脊
四成物	皮 毛	筋	肉	骨
外形上特徵	腦頤之起勢	胸襟之包勢	腰圍之立勢	膀胱之坐勢

들기부터 뒤로는 胸椎10번 정도까지를 연결한 橫斷面이며, 中下焦의 始作部位 역시 橫膈膜下인 腎상돌기 하단과 뒤로는 膈椎10番 以下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中下焦는 腰膂之間이며, 下焦는 腰脊下 膂腹下 以下를 下焦라 하였으니 만일 腰脊을 腰椎5번까지로 보았다면, 腰椎5번하의 디스크部位를 Transverse section 해보면 膂下 一寸部位인 陰交穴 部位에 해당된다. 24)

그러나 이것 역시 명확한 解剖學的 知識을 바탕으로 敘述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단지 膀胱, 腎部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骨盤이 시작되는 部位를 대략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四焦는 해당 內部臟器의 氣의 發源처로서 그 臟腑가 소재한 位置와 無關하게 위치하나 외부적 部位는 일정한 上下部位의 順序대로 나타내고 있다. 즉 頤臆膂腹, 頭肩腰腎, 頭手腰足, 舌下膂間兩乳膂前陰毛際之內, 後四海部位인 頭腦 背脊腰脊 및 膀胱, 背頤胸腋腰脊彎曲과 腦頤之起勢 胸襟之包勢 腰圍之入勢 膀胱之坐勢 등은 모두 四焦의 部位적 개념 속에 包括되어 들어가며 이들은 다소 다른 표현을 빌었지만 사실은 四焦의 代表格인 意味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四次元的인 人體를 平面的인 언어를 빌어 표현하자니 同一한 上焦의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적절한 다른 表現을 빌려야, 立體的이고, 變化되어지는 狀況을 좀더 접근된 概念으로 表現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四焦의 氣와 特性

上記의 考察에 의하면 東武는 上에서 下로 部位의 特性에 따라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 등 四焦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단순한 上에서 下로의 위치에 따른 部位의 差等만을 이유로 分割한 것은 아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氣의 偏差에 따라 分化되어진 것으로서, 四焦의 氣의 分布의 特性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相異한 表現이 있다.

## <資料2>

(2-1).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2-2). 肺以呼肝而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脾腎者出納水穀之府庫也.

(2-3).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2-4). 哀怒之氣上升 喜樂之氣下降 上升之氣過多 卽下焦傷 下降之氣過多卽上 焦傷.

(2-5). 哀怒之氣順動則發越而上騰喜樂之氣順動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陰也 順動則順而下降.

(2-6). 哀怒之氣逆動則暴發而并於上也 喜樂之氣逆動則浪發而并於下也 上升之氣逆動而并於上則肝腎傷 下降之氣逆動而并於下則脾肺傷.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7). 水穀者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下降於大腸而爲寒氣.

(2-8). 水穀之溫氣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神之所舍也 腦海之膩汁清者內歸于肺 濁涕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之熱氣自胃而化膏 入于膂間兩乳爲膏海 膏海者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爲莫海 膜海者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涕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之涼氣自小腸而化油 入于膂爲油海 油海者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 出于脾而爲血 入于腰脊而血海 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滯外歸于肉 故小腸與膂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之寒氣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出于口而爲靜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內歸于腎

濁滯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2-9). 耳以廣博天時之聽力提出津海之清氣充滿於上焦爲神注之頭腦爲髓積累爲髓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提出膏海之清氣充滿於中上焦爲氣而注之背脊爲膜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喉力提出油海之清氣充滿於中下焦爲血而注之腰脊爲凝血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提出液海之清氣充滿於下焦爲精而注之膀胱爲精 精累爲精海.

〈以上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考察〉

證治醫學에서 上焦如霧, 中焦如溝, 下焦如瀆으로 三焦의 氣化의 상황을 말하였다.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는 人體를 上에서 下로 部位的 特性에 따라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四焦로 구분함에 있어서 단순한 部位의 數置的 편차만으로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이는 三焦說에서 언급했듯이 氣의 四象의 分化象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 四焦之氣에 관하여 考察하여 본다.

### 1) 四焦와 性情之氣

性情之氣는 哀怒喜樂의 四氣로서 이는 人體의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이 天機와 人事를 行할 때 世上 또는 他人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性情의 表出상태에 따라 氣의 상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升降의 緩速과 特性이 다르며, 분포되어지는 部位 역시 다른 것이다.

哀怒之氣는 陽이므로 上向의 特性을 발휘하여 위로 오르고, 喜樂之氣는 陰氣로서 반대로 下降하게 되는 것이다.〈자료2-4, 5〉

이처럼 운동의 방향이 上下로 나뉘어 분명한 陰陽의 區分이 되며, 上昇之氣中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한다. 이에 따라 運動의 速度와 方向이 다소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哀氣는 怒氣보다 좀 더 動的이며 그 氣의 形態는 怒氣보다 輕淸하니 보다 陽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下降之氣中 樂氣는

陷降하고 喜氣는 放降하니 역시 運動의 速度 및 方向이 다소 다름을 나타내니 樂氣는 喜氣보다 좀더 陰的이고 質重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喜怒哀樂之氣는 四焦의 분포상황을 보면 哀氣는 上焦에, 怒氣는 中上焦에, 喜氣는 中下焦에, 樂氣는 下焦에 분포한다.

〈자료1-4, 5〉를 보면 그의 順動과 逆動의 구분에 따라 順動時에는 生理的인 氣의 상태로 作用하고, 逆動時는 급작스런 비상시의 상황이 되어 언젠가 適應할 限度를 넘어 수용할 수 없게 되어 病理的인 상황이 된다.

이를 〈자료1-4〉에서 上昇之氣 過多나 下降之氣 過多로 표현하였으며 이때는 相對쪽의 氣가 傷하게 됨을 말하였다.

따라서 太陽人의 경우 哀性遠散而怒性促急哀性遠散則氣注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하여 哀性遠散하여 氣가 肺에 生理的으로 作用하여 盛하며, 怒情促急하면 氣가 脾에서 作用하여 運亢되어 極하므로 이의 恒常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中下焦之氣를 끌어오게 되고 이렇게 탈취당한 中下焦는 弱화될 수 밖에 없다.<sup>25)</sup>

또한 이러한 氣의 升降은 어느 部位를 기준으로 上升下降하는 것이 아니고, 身體 全般的인 에너지가 陽氣化 혹은 陰氣化 되며 그 氣의 特性에 따라 四焦의 部位的 親和性에 따라 각각의 部位에 昇降하며 雲集하게 되는 것이다.

### 2) 四焦와 水穀之氣

水穀之氣는 溫熱涼寒之氣로서 구분하여 胃의 停蓄之力에 의하여 薰蒸된 熱氣를 吸受하고, 小腸의 消導之力에 의하여 平淡한 涼氣를 吸受하는데, 熱氣中 輕淸者는 胃脘의 上升之力에 따라 上焦로 上升하고 涼氣中 質重者는 大腸의 下降之力에 의하여 下焦로 下降하게 된다. 여기서 溫熱涼寒의 구분도 氣의 輕淸과 質重에 따른 氣의 陰陽의 偏差에 따른 分布에 따라 四焦에 分布된다. (자료2-7)

水穀의 四氣는 각각의 循環單位인 四焦에서 耳目口鼻 肺脾肝腎 胃脘 胃 小腸 大腸 및 頭肩腰腎의 作用에 의하여 生理的 機能에 맞게 轉化되어 同化 및 異化作用을 하게 된다. (자료2-9)

(자료2-8, 9)에서 보면 水穀의 溫氣는 胃脘에서 津으로 變하여 舌下에서 津海를 이루고 頭腦 니海로 轉化되고 그것은 肺와 薰은 모두 水穀의 溫氣로서 滋養되고 名稱은 다르나 津, 神, 니등 모두는 水穀之溫氣의 變化된 形態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上焦는 水穀의 溫氣로서 充滿되고 이 溫氣는 人體의 要求에 따라 끊임없는 轉化를 하며 生理的 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 이처럼 水穀之溫氣의 轉化로 에너지를 供給받으며 끊임없는 生理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器官들인 肺의 薰이 所在하는 部位를 上記의 考察(고찰1)에 의하여 上焦로(耳는 上焦에서 除外 되나 이를 따로 天의 四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耳는 上焦에서 機能을 決定하는 가장 重要的 器官이기 때문에 機能上 연결고리는 上焦와 큰 關係를 가짐) 갈무리할 수 있다.

水穀의 熱氣는 胃의 停蓄之력에 의하여 胃에서 膺로 化하고 兩乳 사이에 膺海를 이루고, 目的 廣博世會之視力에 의하여 中上焦에 充滿시키고 氣로 轉化시켜 배려에 膜海를 이루고 脾와 筋의 生理的 機能의 滋養分이 된다. 따라서 中上焦 水穀之熱氣로 충만되어 인체가 요구하는 機能的 基礎가 된다.

水穀之涼氣는 小腸의 消導之력에 의하여 水穀중 平淡한 涼氣를 흡수하고 이를 油로 轉化시키고 鼻의 廣博人倫之嗅力으로 油海의 清氣를 中下焦에 충만시키고 血로 轉化시켜 腰脊에 血海를 조성하여 肝과 肉의 生理的 機能의 滋養分이 된다. 따라서 中下焦는 水穀의 寒氣로 충만되어 이의 적절한 氣化에 의하여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水穀之寒氣는 大腸의 下降之력에 의하여 涼氣之質 重者가 下降하여 大腸하여 液으로 轉化되어 前陰毛際之內에 液海를 이루고 口의 廣博地方之味力에 의

하여 液海의 清氣를 下焦에 충만시키고 精으로 化하여 膀胱에 精海를 조성하여 腎과 骨의 生理的 機能을 滋養하게 된다. 따라서 下焦는 水穀之寒氣로 充滿되어 이의 적절한 氣化作用에 의하여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四焦를 구성하는 氣의 生成, 轉化, 消費하나 하나의 單位로서 이들 사이에는 全體가 하나로서의 統合된 조절의 機構를 통하여 統合되어 蹉跎없이 機能을 수행하지만 (心의 통제) 各焦마다의 분포하는 氣의 相異함으로 인하여 그의 生氣論的, 生理論的, 形態學的 相異함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氣의 분포의 太過 不足이 구성에 따라 각자 特異한 性情과 相異한 生理와 獨特한 病理的 現象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4가지 다른 臟理가 出現하여 太少陰陽人의 體質의 분포가 나타나니 이를 四象體質이라 한 것이다.

### 3) 四焦와 四臟之氣

四臟之氣는 水穀之氣나 哀怒喜樂之氣를 통털어 표현한 代表格의 氣라 할 수 있다. 肺氣는 上焦之氣로서 哀氣, 溫氣로서 代表되는 氣이다. 따라서 肺氣란 上焦之氣로서 性質은 直升, 向外部, 向上部 및 溫한다. 脾氣란 中上焦之氣로서 怒氣와 熱氣가 있으며 性質은 橫升, 向中外, 向中上部 및 熱한다. 肝氣는 中下焦之氣로서 喜氣 및 涼氣가 있는데, 성질은 放降, 向中內部, 向中下部 및 涼하다. 腎氣는 下焦之氣로서 樂氣와 寒氣가 있으며 性質은 陷降, 向內部, 向下部 및 寒하다.

### 4) 四臟之氣의 特性

한편 肝肺는 氣液之門戶로서 肺는 肝이 吸入한 天氣를 全身에 呼散시키고 外部로도 發散시킨다. 이는 發汗과도 깊은 關聯이 있다. 人體內에서 上焦에 作用하는 모든 氣의 屬性을 臟腑와 聯關지어 生理的으로 說明한 것이다.

人體는 天氣와 地氣로 살아간다. 天氣는 肺와 肝



을 통하여 吸入되고 吸收된 水穀之氣와 結合하여 全身에 呼散되어진다. 地氣인 水穀之氣는 땅에서 生産되어지는 生物 및 無生物體로서 脾를 통하여 흡수되고 腎을 통하여 出放되어진다. 이것은 人體의 大循環으로서 가장 基本的이고 重要的인 陰陽의 代謝이다. 肝에 의하여 吸入된 天氣는 肺에 의하여 全身으로 氣를 呼散시키고 濁氣는 肺에 의하여 排出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可視的인 것이나 非可視的인 상황은 肝에 의하여 吸入된 天氣는 肺와 肝의 모으고 흐트리는 작용에 의하여 地氣와 합쳐져서 生氣가 되어 체내로 순환 배포되고 濁氣중 輕淸한 氣는 肺에 의하여 外部로 呼散되고 肺의 작용인 主皮毛, 主外作用에 의하여 呼散되는 濁液은 鼻를 통한 뿐만아니라

皮膚의 門인 汗門을 통해서도 發散된다. 液化되어 있는 陰的인 濁液은 肝의 下降之力에 의하여 小便으로 排泄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脾胃는 水穀之府庫로서 脾는 納하고 腎은 出한다. 地氣인 땅의 모든 味는 입을 통하여 脾의 腑인 胃로 수납하고 여기서 소화 흡수되며 小腸과 大腸을 거쳐 항문으로 出放된다. 이는 肝肺가 氣液의 代謝인 것과는 달리 水穀의 대사로서 消化와 大便排泄은 上昇과 下降이라는 2대의 陰陽代謝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脾의 受納作用은 中上焦之氣인 怒氣나 熱氣의 特性이며 그 結果이다.

따라서 呼散之氣, 納積之氣, 吸聚之氣, 出放之氣는 四焦의 각각의 生理機能을 人體代謝의 中心인 臟

〈표2〉 四焦에 作用하는 氣의 種類를 表現한 用語

四焦	上 焦		下 焦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
四臟部位	肺氣	脾氣	肝氣	腎氣
四情之氣	哀氣	怒氣	喜氣	樂氣
四部之氣	濁氣	熱氣	涼氣	寒氣
四臟氣의 機能	呼散之氣	納積之氣	吸聚之氣	出放之氣
前四海物部	津	膏	油	液
後四海物質	賦(神)	膜(氣)	血	精
生命論의 氣	神	靈	魂	魄
生命論의 氣	意	慮	操	智

〈표3〉 四焦之氣의 特性을 나타내는 用語

四焦	上 焦		下 焦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
四臟之氣	肺氣直而伸	脾氣榮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蓄
水穀之氣	熱氣之輕淸(溫)	熱氣之薰蒸者	涼氣之平淡者	涼氣之質重(寒)
四情之氣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作用點(上下)	上部	中上部	中下部	下部
作用點(表裏)	皮毛(主外))	筋(主中外)	肉(主中內)	骨(主內)
四臟之力	呼散之力	納積之力	吸聚之力	出放之力
四部之力	胃脘上升之力	胃以停蓄之力	小腸消導之力	大腸下降之力
四行之力	頭以直伸之力	手以能收之力	腰以寬放之力	足以屈強之力

器와 關聯지어 設定한 用語로서 四臟之氣의 機能의 名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四焦를 통한 人體의 生理機能을 說明하는데 가장 重要한 用語이다. (자료 2-2)

### 3. 四焦와 四象體質

以上에서 四焦의 部位와 그에 작용하는 氣의 각각의 特徵을 알아 보았다. 이제 이러한 部位에 따른 氣의 相異한 特性이 人體에서 어떤 生理的 作用을 하는 알아보자.

#### 1) 稟賦的 體質論

〈資料3〉

(3-1).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名曰少陰人.

(3-2). 太小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不全 其天稟者 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3).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3-4). 頻起怒而頻復怒則腰脅頻迫頻蕩也 腰脅者肝之所住着處也

腰脅迫蕩不正則肝其不傷乎.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5). 太陽之聽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陽之嗅不能廣博於人倫 故太陽之血不充足於腰脊而歸肝者小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6). 肺大呼散之氣太過也. 肺小吸聚之氣不足也.

(東武公自註)

(3-7). 少陽人怒性宏包而哀情促急 怒性宏包則氣

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脾大腎小也

(3-8). 忽動哀而忽止哀則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則腎其不傷乎.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9). 少陽之視能廣博於世會故少陽之氣充足於背脊而歸脾者大也.

少陽之味能廣博於地方故少陽之精不充足於膀胱而歸腎者小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0). 脾大納積之氣太過也. 腎小出放之氣不足也.

(東武公自註)

(3-11).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故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3-12). 屢得樂而屢失樂則背頓暴揚而暴抑也.

背脊者肺之所住着處也 背頓 抑揚不定則肺氣不傷乎.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13). 太陰之嗅能廣博於人倫 故太陰之血充足於頭腦而歸肝者大也.

太陰之聽不能廣博於天時故太陰之神不充足於頭腦而歸肺者小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4). 肝大吸聚之氣太過也 肺小呼散之氣不足也

(東武公自註)

(3-15).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3-16). 乍發喜乍收喜則胸腋乍闊乍狹也 胸腋者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則脾氣不傷乎.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17). 少陰之味能廣博於地方 故少陰之精充足於膀胱而歸腎者大也.

少陰之視不能廣博世會 故少陰之氣不充足於背脊而歸脾者小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8). 腎大出放之氣太過也 脾小納積之不足也.

(東武公自註)

〈考察〉

사람은 先天的으로 태어날 때부터 太少陰陽의 4 가지 體質을 갖고 태어났다. 太少陰陽의 臟局의 短長은 天理의 變化로서 聖人이나 衆人이나 다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天稟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固定的 이라는 것으로서 人間이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마음의 淸濁과 闊狹는 聖人과 衆人이 서로 다르며 人事의 修不修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體質에 따라 肺脾肝腎의 大小가 다른데 이는 四象人의 性情에 따라 臟局의 大小가 決定된다고 하였다. <자료3-1, 2>

太陽人은 衰性이 遠散하다는 것은 耳의 廣博天視하는 機能이 深遠廣大하여<sup>26)</sup> 水穀之氣중 熱氣之輕淸者인 溫氣를 提出하여 上焦에 充滿시킬 뿐만 아니라 神氣로 變化시켜 頭腦에 충족시키고도 넉넉하여 肺로 충분한 공급을 하여 滋養하므로 肺大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一連의 過程은 바로 肺黨의 循環이 充足된 상태로서 이는 바로 上焦의 機能的 旺盛과 形態 및 氣像의 旺盛을 나타낸다. 즉 이는 肺大 즉 呼散之氣의 太過를 말한다.(자3-3, 5, 6)

따라서 水穀之溫氣는 肺氣의 根本이 되며 衰氣 역시 水穀之溫氣의 補助力에 의하여 發顯될 수 있다. 이러한 水穀之溫氣의 特徵은 直升하므로 빠른 上升에 의하여 呼散之力을 갖는다.

반면, 太陽人의 脾가 人倫하는 機能이 淺近狹小하여<sup>27)</sup> 水穀之氣중 涼氣之平淡者의 轉化物質인 血이 削하여 腰脊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所以는 太陽人이 자주 怒하므로 肝의 部位인 腰脅 즉

中下焦의 部位에 氣를 傷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3-3, 4, 6> 따라서 太陽人의 臟理는 肺大肝小한데 다시 敷衍하면 上焦의 機能과 外部的 發顯이 모두 旺盛하며 中下焦의 機能과 外部的 發顯이 모두 不足하다. 이러한 狀態를 東武는 上焦之氣의 總體的 代名詞인 呼散之氣로 표현하여 呼散之氣太過요, 中下焦의 總體的 代名詞인 吸聚之氣로 표현하여 吸聚之氣不足이라 하여 肺大肝小한 太陽人의 機能的 形態學的 狀況을 한마디로 說明하고 있다.

少陽人은 怒性이 宏包하다는 것은 脾의 廣博世會하는 機能이 遠近廣大하여 水穀之氣중 熱氣之薰蒸者를 提出하여 中上焦에 충만시키고 氣로 變化시켜 背脊에 충족시키고 다시 脾로 營養을 충만히 공급하므로 脾大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循環過程은 脾黨의 순환이 충족된 상태로 이는 바로 中上焦의 機能的 旺盛과 形態 및 氣像의 盛壯을 나타낸다. 즉 이는 脾大 혹은 納積之氣의 太過를 말한다.

반면, 少陽人의 口가 地方을 行하는 機能이 淺近狹小하여 水穀之氣중 涼氣之質重者인 寒氣를 충만하게 提出시키지 못하는 所以로 下焦之氣가 충만치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液海 및 精海에도 공급의 不足현상으로 인하여 全體적으로 下焦의 機能的 低下와 形態 및 外部的 發顯이 不足하게 된다. 이를 腎小 혹은 出放之氣不足이라 표현한다. <자료3-7, 8, 9, 10>

이처럼 太陽人의 肺大肝小란 生理的으로는 肺氣의 순환로인 上焦의 氣의 供給과 循環 및 轉化 過程의 總體的인 過大現象으로 인하여 上焦之氣의 特性인 呼散之氣의 太過인 반면, 肝氣의 순환로인 中下焦의 氣는 供給과 循環 및 轉化의 총체적 不足現象으로 인하여 中下焦之氣의 특성인 吸聚之氣의 不足이라 表現되어지니 이러한 先天的 臟理는 生理的 혹은 病理的 特性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外部的 發顯은 그의 形像學的 性質 才幹 등의 特性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不足과 過度의 形象은 바로 性情

에 기인한 四黨의 偏大偏小에 의한다)

少陽人은 脾大腎小란 生理的으로 脾氣의 순환로인 中上焦에 작용하는 中上焦之氣의 供給과 循環 및 轉化過程의 總體的 過度 현상으로 인하여, 中上焦之氣의 特性인 納積之氣의 太過인 반면, 腎氣의 순환로인 下焦의 氣의 供給과 循環 및 轉化의 총체적 不足 현상으로 인하여 下焦之氣의 특성인 出放之氣의 不足이라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太少陽人은 陽人의 특성인 上焦가 발달되어 있으며 인체의 心的, 肉體의 에너지의 발생이 陽性化 되는 體質이다.

## 2) 四焦와 四象人의 體形氣像

<資料4>

(4-1) 太陽人體形氣像腦頓之起勢 盛壯而腰圍之立勢孤弱 少陽人體形氣像胸襟之包勢盛壯而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體形氣像腰圍之立勢盛壯而腦頓之起勢孤弱 少陰人體形氣像膀胱之坐勢盛壯而胸襟之包勢孤弱.

(4-2) 少陽人體形 上盛下虛胸實足輕票銳好勇而人數亦多四象人中最爲難辨

(4-3) 少陰人體形矮短而亦多有長大者或有八九尺長大者太陰人體形長大而亦或有六尺短矮者.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考察>

上記 資料에 의하면, 太陽人의 體形氣像은 上焦部位인 頸椎와 頭蓋에 그 特徵이 나타나니 上焦之氣인 肺氣가 直升, 直伸의 勢力이 강하므로 頸椎以上으로 곧고 바른 形態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 中下焦部位인 腰脅部에는 中下焦之氣의 특징인 放降, 屈伸之力 등의 부족으로 허리의 立勢가 곧지 못하며 屈身이 자유롭지 못하며, 弱하게 나타난다. 太陰人은 이와 반대이다.

少陽人은 中上焦部位인 가슴에 그 特徵이 나타나니 中上焦之氣인 栗而包, 橫升之力, 能收之力의 包容할 듯한 形態가 강한 반면, 下焦部位인 엉덩이部位가 坐勢가 弱하다. 少陰人은 이와 반대이다.

## 3). 四焦之氣와 體質心性

<資料5>

(5-1). 太陽之性氣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性氣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性氣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性氣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性氣恒欲內守而不欲外勝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5-2). 太陽人性質長於疏通而材幹能於交友 少陽人性質長於強武而材幹能於事務

太陰人性質長於成就而材幹能於居處 少陰人性質長於端重而材幹能於黨與.

太陽人性質疏通又有果斷.

太陰人容貌詞氣 起居有儀修整大 少陰人容貌詞氣體任自然而簡而少巧

太陰人恒有怯心. 少陽太陰人恒有懼心. 少陰人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恒有急迫之心.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考察>

以上の 資料를 考察하여 보면, 四象人의 心性은 前進과 後退, 上昇과 下降, 動과 靜, 處와 出이 있으며, 情氣의 發路로는 雌와 雄, 外勝과 動的으로서 現實에 安住하기 보다는 未來指向의이며, 自己의 活動範圍가 陰人보다는 外部的이어서 內守하기 보다는 外勝하려 한다. 따라서 그의 心性의 소재는 보다 外的이고 보다 前進的이며, 보다 上昇的이고, 보다 動的이며, 보다 男性的이라 하겠다. 반면 陰人의 少陰人은 그의 心性의 소재가 內的이며, 現實安住形이며, 보다 下降的인 思考를 하며, 靜的이며, 女性的이라 하겠다.

太陽人의 性氣가 欲靜而不欲動하는 所以는 太陰人의 喜性 때문이니 喜性은 放降하기 때문이며, 情氣

가 內守而不欲外勝한 所以는 樂情이 促急하기 때문 이니 樂情이 促急하며, 上焦之氣인 哀性의 直升之力 을 견제하므로 心性의 陽的인 氣를 더욱 萎縮시키 며, 喜樂相資에 의하여 더욱 陰的이고 內省的인 心性을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心性의 所在은 向內的이므로 心性이 靜的이며, 외부의 일을 건지기 보 다는 內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太陰人의 性質은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노력하여 成就하는 長點이 있으며, 材幹은 居處에 능하다.

少陽人의 性氣가 欲學而不欲措 하는 所以는 少陽人이 怒性 때문이니 怒性은 橫升하려 하지 定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情氣가 恒欲外勝而 不欲內守인 所以는 哀情이 促急하여 下焦之氣인 樂氣의 陷降能力을 견제하므로 心性의 陰的인 기운을 더욱 위축시키며 哀怒相成에 의하여 더욱 陽的이고 外性的인 心性을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心性의 소재는 向外的이므로 心性이 일을 꾸미고자 서두르나 마무리가 부족하고, 內面의 일에 힘쓰고 이루기 보다는 外部的인 일을 보다 더 마음을 쏟게 된다. 따라서 少陽人의 성질은 強武에 能하고 材幹은 事務에 能하다.

少陰人의 性氣가 欲處而 不欲出한 것은 少陰人의 樂性 때문이니, 樂性은 放降하는 性質로 인하여 한 곳에 깊이 머물러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性氣가 恒欲爲雌而不欲爲雄이라는 것은 少陰人의 喜情이 促急하여 怒性의 男性的인 氣運을 萎縮시키고 게다가 哀怒相成하여 哀性의 기운도 制壓하여 陽的인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男性的이지 못하고, 전적으로 女性的이어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心性의 所在은 向內的이고 女性的이 된다. 따라서 少陰人 性質은 端重하며, 材幹의 黨與에 능하다. 따라서 性氣와 情氣는 四象人 四焦之氣의 強弱에 따라 順動之氣와 逆動之氣의 作用을 통하여 그의 心性의 所在가 정해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 性質과 材幹이 나타난다.

#### 4) 四焦之氣와 體質病證

〈資料 6〉

(6-1) 太陽人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太陰人汗液通暢則完無病.

少陽人大便善通則完實無病. 少陰人飲食善化則完實無病.

(6-2) 太陽人噎膈則胃脘之上焦散割如風, 太陰人裡病則小腸之中焦壅塞如霧 少陽人大便不通則胸膈必如熱化 少陰泄瀉不止則膈下必冷也

(以上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考察〉

完實無病의 조건은 過小之臟의 機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生理的 症狀이 나타나면 된다.

太陽人은 肺大肝小하니 肺大로 인한 呼散之氣는 太過한 반면, 肝小로 인한 吸聚之氣의 不足현상으로 인하여 疾病의 상태로 빠진다. 그러나 過小之臟의 機能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진다면 健康한 것이다. 따라서 太陽人의 경우 中下焦의 臟腑機能이 온전하면 吸聚之氣가 정상적 生理機能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吸聚之氣가 不足하여 氣液을 下部로 이끌어 小便으로의 배설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小便의 旺多는 평소 中下焦之氣가 약한 太陽人에게 完實無病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呼散之氣의 過度로 인하여 上焦인 口로 침이 고이게 된다면, 이는 肺大肝小의 偏差가 더 深化되는 증상이므로 大病에 해당되는 것이다.

太陰人의 경우는 이와 상반된 경우가 되는데, 즉 肝大肺小한 太陰人은 呼散之氣의 正常與否가 健康의 조건이 되니, 呼散之氣란 水穀과 天氣의 氣를 합하여 全身에 配布하는 機能을 하는데, 만일 太陰人이 呼散之氣가 不足하면 전신에 正氣를 올바르게 배포치 못하게 된다. 이러한 呼散之氣의 正常與否는 皮膚의 開闔를 주관하는 呼散之氣가 機能을 못하여 鬱하게 되면 小腸의 痢疾이 되는데 이를 大病이라 한다. 이것이 심하여져 안개가 낀듯 답답하면 重病에 해당되

는 것으로 呼散之氣와 吸聚之氣의 太過와 不足의 편차가 더 심하여진 것이다.

少陽人은 脾大腎小 하므로 腎의 機能 여하에 따라 完實無病의 能否를 알 수 있다. 腎氣는 下焦之氣인 出放之氣인데, 出放之氣는 脾胃에서 納積한 水穀의 배설물을 배설하는 機能을 보면 이의 機能을 알 수 있으니, 만일 不足하면 大便不通이 될 것이며, 이 경우 少陽人은 大病이며, 이러한 大便不通으로 인하여 胸膈이 烈火와 같다면 重病이다.

少陰人의 경우는 腎大脾小하니 脾의 機能 여하로 完實無病의 조건을 알 수 있다. 脾氣는 中上焦之氣인 納積之氣로서 水穀을 받아 消化 吸收시키는 機能으로서 少陰人은 음식이 善化하면 健康한 것이다. 그러나 少陰人이 納積之氣의 不足으로 인하여 呼散之氣의 원천이 不足하여 腠理의 開闔작용을 主導할 수 없어 虛汗이 난다든지, 出放之氣를 納積之氣가 制御하지 못하여 過度하게 出放될 때는 大病이며, 이 경우 더욱 심하여져 泄瀉不止하며, 臍下가 水冷처럼 차면 重證이다.

## 結 論

以上, 四焦의 부위 및 四焦之氣를 考察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西焦의 部位는 다음과 같다.

1) 四焦部位는 前으로는 쇄골 上緣 以上에서 頸部の 함하까지이며, 後部로는 全髮際에서 뒤로 後頭를 거쳐 경추7번 部位까지로서, 頭頸項部를 말하며, 顔面을 제외한 部位이다.

2) 中上焦部位는 橫膈膜以上으로서, 前으로는 구미돌기 以上이며, 後로는 胸椎10번 部位 以上の 體幹 部位로서, 上肢도 中上焦에 속한다.

3) 中下焦部位는 橫膈膜下 以下부터 臍下 1寸部位인 陰交穴과 뒤로는 腰椎5番下를 연결한 其以上の

部位이다.

4) 下焦部位는, 前으로는 臍下1寸의 陰交穴下 以下이며, 後로는 薦椎1번 以下 부위로서 骨盤腔 部位이며, 下肢도 下焦에 속한다.

2. 四焦之氣는 다음과 같다.

1) 上焦之氣는 肺氣로서, 衰氣, 溫氣가 있고, 그 生理的 機能은 呼散之力으로서 主上部 및 主外部(皮)에 작용하며, 성질은 主溫하며, 形態는 輕淸하다.

2) 中上焦之氣는 脾氣로서, 怒氣, 熱氣가 있고, 그 生理的 機能은 納積之力으로서 主中上部 및 主中外部(筋)에 작용하며, 성질은 主熱하며, 形態는 薰蒸하다.

3) 中下焦之氣는 肝氣로서, 喜氣, 涼氣가 있고, 그 生理的 機能은 吸聚之力으로서 主下部, 主中內部(肉)에 작용하며, 성질은 主冷하며, 形態는 平淡하다

4) 下焦之氣는 腎氣로서, 樂氣, 寒氣가 있고, 그 生理的 機能은 出放之力으로서 主下部, 主內部(骨)에 작용하며, 성질은 主寒하며, 形態는 質重하다.

3. 四焦와 四象體質

1) 體形은 四焦의 部位와 그 氣의 特性에 따라 盛壯과 孤弱의 部位와 特性이 나타난다.

2) 心性은 四焦之氣의 太過와 不足에 따라서 陰陽, 內外, 上下, 前後와 雌雄의 特性이 나타난다.

3) 體質病證中 疾病의 完實無病과 大病, 重證의 條件은 각 體質의 偏小之臟의 氣가 正常的으로 作用한다면, 完實無病이요, 太過와 不足의 隔差가 더욱 벌어져 太過에 치우치면 大病이요, 이것이 더욱 深化되어 偏小之臟의 氣가 萎縮되는 病理的 狀況이 發하면 重證이다.

## 參考文獻

1. 김동수 : 호흡관리의 실제, 서울, 헤민의학사, p.13, 1990
  2.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86
  3. 이준상 : 건강진단법, 서울, 고려의학, 폐의 해부생리, pp. 115-134
  4. 蔡陸仙 : 醫部全錄 卷一 五百中 臟腑門, 台北, 中國通俗圖書刊行社 pp.297-298, p. 303
  5. 한갑수 :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pp.103,260, 1987
  6. 한만청외 1인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p.79,115-151, 1992
  7.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260-284, 1981.3
  8. 洪元植 : 中國醫學社,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243, 1984
  9. G. J. Romanes : Cunningham's Text Anatomy, New York Toroto, Oxford p.445, 1981
  10. 裴廷和 三焦의 機能과 病證의 相關性에 대한 小考, 1983. 11
- 주1) 蔡陸仙 : 醫部全錄 卷一 五百中 臟腑門 扁鵲難經, 臺北, 中國通俗圖書刊行社, pp.297-298
- 주2) 蔡陸善 : 醫部全錄 卷一 五百中 臟腑門 醫學正傳, 臺北, 中國通俗圖書 刊行社, p303
- 주3-9)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260-284, 1981.
- 주10)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43, 1984.
- 주11) 이준상 : 健康診斷法, 서울, 高麗醫學, 肺

의 解剖生理, pp.216, 1989.

- 주12) 한갑수 : 人體解剖學, 서울, 高文社, p260, 1987.
- 주13) 한만청외 1인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p.115-134,1992.
- 주14) G.J.Romanes : Gunningham's Textbook Anatomy, Newyork Toronto, oxford, p.445, 1981.
- 주15) 한만청외 1인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p.114-139
- 주16) 주12와 上同
- 주17) 주12와 上同
- 주18) 이준상 : 健康診斷法, 서울, 高麗醫學, pp.316, 1989.
- 주19) 太陽人體形氣像 腦脊之起勢盛壯 ... (四象人變證論)에서 보면 內部的 氣의 발현은 外部的 形態의 變化를 초래.
- 주20) 한만청외 1인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79, 1992.
- 주21) 한갑수 : 人體解剖學, 서울, 高文社, p.103, 1987.
- 주22) 김동수 : 呼吸管理의 實際, 서울, 헤민의학사, p13, 1990.
- 주23) 한만청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115, 1992.
- 주24) 한만청 : Sectional Human Anatomy, 서울, 일조각, pp150-151, 1992.
- 주25) 過亢된 陽的 에너지를 平定시키기 위하여 비슷한 勢力의 陰的 에너지를 必要로 하니, 下焦之氣보다는 中下焦之氣를 끌어오게 됨.
- 주26-27) 耳目口鼻之用深遠廣大則精神氣血生也. 淺近狹小則精神氣血耗也.